



특 집

IMF시대의 축산위기 극복을 위한 조사료 생산대책



최엄순

농림부 축산경영과 축산사무관

1. 머리말

IMF체제하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분야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환부족과 환율상승으로 빚어진 금융위기가 UR협상의 파고 보다 더 거칠게 산업전반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며, IMF협정(1997.12.3) 이후인 지난해 12월에는 외환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국내 사료업체들이 원료수입을 위한 연지급 수입신용장(Usance L/C)을 개설하지 못하여 한때 사료원료 수입이 전면 중단되고, 환율상승으로 사료가격이 이미 36%나 인상된 바 있다.

다행히 1월 이후 외환사정이 호전되고, 환율 또한 안정되고 있어

사료원료 수입은 점차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료값과 축산원자재값이 대부분 크게 상승되었기 때문에 소사육농가들이 경영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축산물 소비는 위축된 반면, 양축농가들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출하물량을 늘리고 있어 소값은 계속 하락하여 소사육농가들의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다.

한·육우 및 낙농가들이 과연 이러한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우리 모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금모으기운동」에 너도 나도 참여하듯이 우리 소사육

농가들은 IMF(국제통화기금)체제 극복을 위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한 의지를 갖고「조사료생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축산경영의 70~80%나 되는 사료비를 반드시 절감해 나가야 한다.

다시말해서 앞으로는 배합사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양표준에 맞게 양질조사료의 생산이용을 최대한 늘리고, 경영혁신을 과감하게 이루어 나가야 한다. 지금과 같은 축산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

정부에서도 때 마침 조사료생산 대책을 발표(1998.1.19)하고 금년 중요 축산시책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는 데, 이를 자세히



특 집

알아 보고자 한다.

2. 현황

가. 축산여건 변화

UR협상이후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온 소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IMF시대를 맞아 하루 아침에 축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기를 맞고 있다.

환율급등으로 인하여 배합사료 가격이 평균 36%씩 인상된 데다가 거래방식도 과거 외상구입이 가능하였는데 현금판매로 바뀌어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잖아도 축산농가들이 한우 및 젖소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축사 개선 및 자동화시설 등을 위해 지원 받은 자금이 소액 하락으로 원리금 갚기에도 벅찬 데 금리까지 또 크게 올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농가의 자금난으로 최근 소 출하물량이 크게 늘고 있을 뿐 아니라 경기침체로 쇠고기 등 육류 소비가 위축되어 수급과 가격불안이 계속 되고 있다.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원유(原乳)가격을 1998년 1월 1일부터 평균 18.4%를 인상하였는데 제품가격에 반영되어 1월 중순부터 우유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환율상승으로 국산 쇠고기와 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상당 수준 높아졌다. 국산 분유와 치즈 등 유가공품은 가격경쟁력이 낮아 시장개방 이후 수입품에 의하여 시장잠식이 급속히 진전되었으나 환율이 적어도 1달러당 1,400원 수준

으로 유지될 경우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물론, 환율은 경제안정을 위하여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하루속히 떨어져야 하겠지만 당분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환율이 1달러당 1,400원 일때 수입 쇠고기와 유제품의 가격과 국내산 가격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또한, 환율상승이 소사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경영규모가 클수록 생산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이 1달러당 1,400원 일 때 경영규모별 생산비를 비교해 보면 <표2>와 같다.

따라서 생산비를 낮추려면 배합사료 사용을 줄이고 조사료 공급을

최대한 늘려 사료비를 절감해 나갈 수밖에 없다.

나. 소사육 동향과 전망

한·육우의 사육두수는 1997년 말 2,735천두로 작년 9월 보다 5.0%가 감소하였으며, 사육농가수도 465천호로 같은 기간중 17천호가 감소하였다.

젖소는 1997년말 544천두로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작년 9월말 보다는 7천두가 감소하였고, 사육농가수는 17천호로 1990년 이후 매년 2천호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호당 사육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젖소의 경우 규모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30두이상 사육

표1. 환율변동에 따른 쇠고기·유제품 추정가격 비교 (단위:원/kg)

구 분	쇠고기(목심)		탈지분유		피자치즈(모짜렐라)		
	900원/\$	1,400	900원	1,400	900원	1,400	
수입가	수입원가	2,790	4,340	1,800	2,800	2,610	4,060
	관세	1,183	1,840	3,643	5,667	940	1,462
	제비용등	551	857	144	224	209	325
	계(A)	4,524	7,037	5,587	8,691	3,759	5,847
국내산 도매가(B)	9,500	9,500	6,400	6,400	7,100	7,100	
비율(B/A)	2.10	1.35	1.15	0.74	1.89	1.21	

표2. 환율인상에 따른 경영규모별 추정생산비 비교 (단위:천원)

축종	규모별	사육비중	경 영 비			생 산 비			비 고
			'96	'98	증감율	'96	'98	증감율	
송아지(1두)	3두미만	32%	578	736	27.3%	1,632	1,823	11.7%	한우
	3~10	23	582	751	29.0	1,456	1,657	13.8	
	10두이상	45	606	795	31.2	1,288	1,507	17.0	
비육우(1두)	5두미만	14	2,353	2,216	△5.8	3,258	3,151	△3.3	출하체중 한우500kg
	5~20	30	2,447	2,278	△6.9	3,080	2,935	△4.7	
	20두이상	56	2,490	2,293	△7.9	2,938	2,768	△5.8	
젖소(1두)	10두미만	2	1,422	2,248	58.1	2,936	3,800	29.4	산유량 ('96)5,898kg ('98)6,300kg
	10~30	29	1,470	2,265	54.1	2,825	3,660	29.6	
	30두이상	69	1,520	2,225	46.4	2,601	3,317	27.5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998년말 사육전망을 보면 한·육우는 2,554천두로 연초수보다 6.6%가 줄고, 반면 젓소는 546천두로 같은 기간중 0.4% 늘 것으로 예상된다(표3).

1998년도 쇠고기와 우유소비는 IMF 경기의 영향을 받아 작년수준으로 유지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표4), 쇠고기 가격은 환율등락, 사료값과 축산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하여 상반기중에는 불안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4분기 또는 하반기 이후에 환율안정이 되면 수급안정과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소값은 쇠고기의 소비부진과 전년도 이월재고가 많아 상반기중에는 약세가 전망되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사육두수의 감소로 인하여 한우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조사료이용 현황과 수급계획

조사료 생산기반을 보면 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지난 1990년도에 271천ha이었으나 계속 감소하여 1997년에는 229천ha로 크게 감소하였다(표5).

1998년도 조사료 수요는 총 7,190천톤으로서 이중 목초와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2,339천톤을 공급하는 한편, 볏짚·산야초 2,895천톤과 수입조사료 385천톤을 각각 공급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배합사료를 대체하여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표6).

금년도 조사료수급계획에 의하면 양질조사료 공급율이 조사료 총수요의 33%에 불과하나 장기적으로

표3. 소사육 동향과 전망

(단위:천두, 천호)

구분	96말	97.9(A)	12월(B)	98말(C)	B/A	C/B
한·육우	2,844(513)	2,880(482)	2,735(465)	2,554	△5.0%	△6.6
젓소	551(21)	551(18)	544(17)	546	△1.3	0.4
계	3,395(534)	3,431(500)	3,279(482)	3,100	△4.4	△5.5

* ()내는 사육호수임

표4. 쇠고기와 우유소비 전망(잠정)

구분	쇠고기			우유		
	'97	98(P)	증감	'97	98(P)	증감
	천톤		%	천톤		%
■공급						
○총생산	233	199	△15	1,991	1,941	△2.5
○수입	167	187	12.0	391	380	△2.8
○전기이월	3.8	42	11배	109	61	△45
■수요						
○총소비 (1인당/kg)	361.8 (7.9)	365 (7.9)	0.9	2,431 (52.9)	2,341 (50.5)	△3.7
○수출	0.07	0.1				
○차기이월	42	63	50	61	41	△33

표5. 1998년도 초지·사료작물재배 계획면적

(단위:천ha)

구분	1997(잠정)	1998	2001	2004
초지면적(신규조성)	64(1)	66(2)	74(2)	80(2)
사료포(田作)	120	135	160	200
답리작(畜作)	45	50	65	80
계	229	251	299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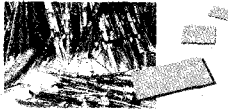
는 이를 56% 수준까지 끌어 올려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공급비율을 정상수준이 되도록 하여 사료비를 낮추어 나갈 계획이다.

소사육농가들의 사료이용 형태는 전체 사료중 조사료의 공급비율이 33%(육성·번식우 41%, 비육우 30%, 착유우 26%) 수준에 불과하여 농후사료 즉, 배합사료의 공급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데, 앞으로 사양표준에 맞게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공급비율을 반드시 60:40이 되게 하여 조사료의 공급비율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

4. 조사료 생산대책

가. 기본방향

조사료생산대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소사육농가에 대하여 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를 통해 양질조사료 공급을 확대해 나가며 둘째, 볏짚 등 국내의 부존 사료자원을 적극 개발 이용하고 셋째, 양질조사료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목초 및 사료작물재배용 우량종자를 공급해 나갈 것이다. 넷째, 조사료생산의 기계화 보급을 촉진 하고, 농가의 자가배합사료와 섬유질사료(TMR)의 이용을 활



특 집

성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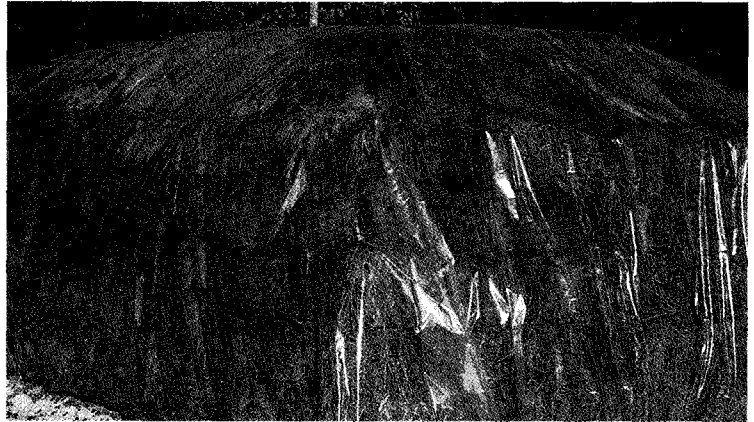
나. 추진대책

(1) 사료작물 재배이용 확대로 배합사료 절감

IMF시대의 축산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사료제조업체들이 사료생산의 전문화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가격과 품질경쟁을 통해 사료산업의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한편, 소사육농가들은 부존 자원의 사료화와 더불어 조사료생산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배합사료를 최대한 절감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국내여건으로 보면 초지조성 확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료작물 재배를 획기적으로 늘려 양질조사료를 생산해야 한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배합사료 가격이 앙등하여 양축농가들이 조사료생산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보고, 사료포(田作)와 논뒷구름을 이용한 사료작물재배 확대에 시책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료포는 경사·구릉지와 노는 밭을 이용하여 청예용 옥수수·귀리·보리·유채·수단그라스 등을 재배하고, 논뒷구름 사료작물은 호밀·이탈리안라이그라스·보리 등을 재배하도록 해 나갈 것이다.

특히 평야의 벼 재배지대, 낙농지대 또는 한우개량단지과 같이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에는 읍·면단위로 1개소씩(개소당 이용농가 10호, 재배면적 10ha이상) 답리작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재배면적을 늘려 나가며 사업평가 결과 농가의 참여도가 좋은 시범마을은 다음 해에 정책 자금을 우선 지원할 것이다.

또한, 사료작물재배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지구입이나 농지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금년도에는 시·군에서 농가별 조사료생산계획에 의하여 각 농가에 두당 재배목표량을 최소한 한우 번식우는 200평, 젖소 착유우는 300평 이상씩 각각 부여하고,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조사료생산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농촌지도기관에서 생산농가를 지도하고 있으나 옥수수 사일리지(silage)를 제조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사일로(silo), 종자와 비료대를 우선 지원하여 생산성이 높은 옥수수 사일리지의 이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다.

조사료생산을 위한 농가지원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에 의하여 사료작물재배, 벧짚암모니아처리, 생벧짚곶포 사일리지, 초지조성, 농기계·장비 및 기반시설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농가의 희망에 따라 매년 세부사업별로 시·군 또는 읍·

표6. 1998년도 조사료수급계획

(단위:천톤)

구	분	1997(잠정)	1998	2001	2004	
수요	한육우용	5,990	5,593	5,795	5,409	
	낙농용	1,593	1,597	1,659	1,688	
	계(A)	7,583	7,190	7,454	7,097	
공급	목초	양질	334	369	518	560
		사료작물	990	1,620	2,080	2,800
		조사료	236	350	481	640
		답리작	1,560	2,339	3,079	4,000
	공급율(B/A)	19%	33	41	56	
		수입 조사료	250	385	390	500
		벧짚·산야초등	2,867	2,895	3,364	2,597
합계(C)	4,677	5,619	6,833	7,097		
부족량(A-C)		2,906	1,571	621	0	

표7. 1998년도 조사료생산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세 부 사 업	최 고 기				지 원 단 가	
	지방비	보 조	용 자	자 담		
기 반 시 설	목로개설	%	50	20	10	km당 45백만원
	용수개발공당					공당30백만원
	전기시설					km당 5.5백만원
	부지정지					ha당 5백만원
	영구목책시설					ha당 3백만원
진입로개설	km당 100백만원					
조사료 생산및 볏짚 사료화	초지조성		50	50		ha당(경운) 3,300천원
	기성초지보완					ha당 1,126천원
	사료작물재배		50		50	지재 공급가격은
	볏짚암모니아 생볏짚사일리지	20(10)	30(10)	40(50)	10(30)	축협중앙회가 결정 개소당 30백만원
장 비 기 타	농기계·장비	20(10)	30(10)	40(50)	10(30)	실제 구입단가
	silos시설	20	30	40	10	1기(50톤)당 5백만원

* ()내는 개별농가, ()외서는 법인·단체에 적용

면에서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량과 자금규모를 확정하여 농가 호당 3억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사료작물재배, 볏짚사료화 이용 및 초지조성 확대에 우선 지원하고 기반시설과 농기계·장비의 지원대상자는 환율 등 경제여건과 자금사정이 호전되는 시기를 보아 지원하도록 하였다.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은 <표7>과 같으며, IMF체제의 긴축재정으로 말미암아 축산발전기금의 운용계획도 변경하여 대부분 지원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조사료생산확충사업비는 전년 보다 오히려 늘려 금년도에 46천호에 400억원(보조 200억원, 용자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자가배합사료, 섬유질사료제조 및 음식물찌꺼기 등 부존자원의 사료화 이용을 위한 시설 자금으로 75억원을 지원한다.

**(2) 볏짚·농업부산물 등
부존자원 사료화 이용**

볏짚은 국내에서 가장 풍부한 조사료원이므로 많은 농가에서 손쉽게 조사료로 이용하고 있다. 양질조사료 생산과 병행하여 국내 부존자원인 볏짚을 활용하기 위해 기계화작업을 통한 건조볏짚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게 수거기를 지원하고 아울러, 생볏짚사일리지 일관기계화사업을 금년에 도당 2~3개소씩 총 20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보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생볏짚사일리지는 건조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고 논에서 벼수확 즉시 생볏짚상태에서 라운드베일링과 랩포장의 기계화제조과정을 거쳐 발효 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생볏짚사일리지의 이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3~5호 농가단위로 기계화장비(Roundbaler·Wrapper·Silagrip)를 지원하고 참여농가 공동이용에 의하여 장비의 가동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 장비는 목초류와 줄기가 가는

화본과 사료작물(straw류)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경제성과 작업능률을 고려하여 농가실정에 맞는 기종선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에 등록하여 품질보증과 사후서비스가 보장되는 기종을 보급하도록 한다.

농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볏짚·보리짚 암모니아처리사업은 축협중앙회가 자체단가를 일괄계약하여 희망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농협중앙회에서도 볏짚암모니아처리를 위해 금년 자체사업으로 단위농협을 통해 농가에 2만기, 10억원을 보조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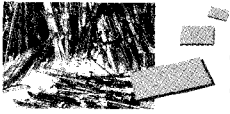
그리고 농가에서 콩각지, 채소부산물, 옥수수대, 고구마 줄기 등 조사료로 이용가능한 모든 농업부산물과 맥주박·콩비지·

굴박·각종 박류등 농산가공부산물을 사료화하여 이용할 수 있게 농촌지도기관이 지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각 도에서 청초기에 산지를 이용한 마을공동방목장을 도당 10개소씩 설치 운영하는 한편, 한우 및 낙농가를 중심으로 8~9월중에 마을공동 산물배기를 통해 건조생산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3) 우량 목초 및 사료작물종자
확보 공급**

초지와 사료작물재배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량 목초 및 사료작물종자를 적기에 확보하여 재배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산 청예용 옥수수종자는 중자공급소에서 신청을 받아 보급중



특 집

(수원 19호·광안옥·황성옥) 179톤을 금년에 공급하고, 국내산 옥수수 수의 신품질종인 수원 118호는 도입종 보다 생산성이 더 높기 때문에 19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목초와 사료작물 종자는 국내에서 신품질 개발이 부진할 뿐 아니라 생산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축협중앙회가 회원조합과 시·군을 통해 신청받고, 또한 낙농육우협회와 농협중앙회에서도 직접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외국산 우량종자를 싼값으로 각각 수입하여 신청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목초 및 사료작물종자는 총 5,500톤을 국내산이나 수입에 의하여 확보 공급할 계획이며(표8), 수요량중 나머지는 농가에서 자가 채종해 보유하고 있는 옥수수·보리·호밀 종자 등을 확보하여 파종토록 할 것이다.

특히, 남부지방의 축산농가들은 청에 사료작물을 많이 재배하기 위해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길보리종자를 2월 중순 이전에 봄파종을 해야 한다.

정부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올해 조사료생산대책 추진을 위해 정책자금의 지원규모를 대폭 늘려 지원하고, 용자기간이 도래된 축산자금의 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한편 배합사료와 수입 사료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다각적인 정책지원과 노력을 다하고 있다.

외국산 우량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축협중앙회로 하여금 해외에서 매년 5천톤 수준씩 계약생산하여 종자를 적기에 수입 공급하도록 하고 종자공급체계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목초와 사료작물종자는 지금까지 축협중앙회를 통해 종자를 공급받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대상농가는 종자대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생산자협회나 단체를 통해 우량 종자를 공급받은 사업대상자도 종자대를 지원받을 수 있게 종자공급요령을 보완할 계획이다.

(4) 신규 초지조성 및 기성초지 사후관리

초지조성은 매년 1~2천ha씩 신규조성을 하기 위하여 개발가능한 산지중 국공유지를 적극 발굴하여 초지조성을 희망하는 농가에 알선하고, 초지조성비를 매년 현실화하여 계속 지원하는 한편 임대절차를 간소화하여 초지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한우송아지생산기지화 계획에 따라 풀사료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중산간지대 중심으로 초지를 매년 500ha씩 총 4,500ha를 신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조성된 초지는 타용도의 전용을 가능한 억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초지는 종자·비료 등 자재대를 지원하여 우량초지로 보완해 나간다.

표8. 1998년도 목초 및 사료작물종자 공급계획

(단위:톤)

구 분	최 고 기		추파용	합 계		
	국내산	수입종		계	국내산	수입종
목초 종자		38	38	277	315	315
사료작물종자	179	1,225	1,404	3,781	179	5,006
계	179	1,263	1,442	4,058	179	5,321

(종자신청 및 공급시기)

신청시기 : 춘파용 10월(전년), 추파용 3월 공급시기 : 춘파용 2~3월, 추파용 8월
 파종시기 : 춘파용 3.15~5.15(청예용 보리의 봄파종 2.15이전)
 추파용 8.20~9.15(답리작 10.10~10.30)

(5) 조사료생산 기계화 촉진

조사료생산 기계화 보급을 통해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조사료기계화

단지를 1996년까지 415개소를 육성하였으나 앞으로 600개소까지 육성할 목표로 매년 20~30개소씩 신규 지원한다.

조사료생산용 농기계는 이용농가와 경영규모에 적합한 표준규격과 모델을 선정하여 품질검증을 거쳐 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축협중앙회가 일괄 단가 계약을 하여 우수한 농기계를 값싸게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농가에 공급된 농기계는 일정기간 하자보증과 사후서비스 지원을 의무화 하는 등 정책사업으로 지원된 농기계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6) 농가 자가배합사료 활성화 및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

앞으로 한·육우 및 낙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가 국내 생산이 가능한 농업·농산부산물과 옥수수 등 수입 원료곡물을 스스로 혼합하여 이용함으로써 배합사료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축협을 통해 원료곡물을 축산농가에 직접 공급해 나가기로 하고, 축협중앙회에 원료곡물 공급시설을 2개소 설치를 위해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축산농가·영농조합법인·축산단지 및 기타 축산경영체에 대하여 자가배합기, 곡물분쇄기 등 자가배합사료장비와 시설을 80개소에 1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에서 자가배합사료를 제조하여 이용하게 되면 배합사료비를 최소한 20~30% 수준은 절감할 수 있

게 된다.

아울러, 낙농가에 주로 지원하던 섬유질사료(TMR)제조시설을 계속 확대하여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1993년부터 지원해온 섬유질사료제조시설은 작년까지 25개소를 지원하여 현재가동중이나 금년에 5개소, 16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60개소까지 확대하여 낙농가에 생산성이 높은 전문사료를 자가생산하여 이용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

5. 맺는말

지금까지 IMF시대의 축산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조사료생산대책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사료와 축산원자재 가격, 그리고 금리 모두가 크게 오른 반면 축산물 소비는 위축되고 소값이 하락한 IMF 체제 하에서 한·육우 및 낙농업을 영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는 모두가 깊이 느끼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위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소산업이 생존해 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목장경영의 70~80%나 되는 사료비를 절감하지 않고서는 생산비를 낮추고 경영안정을 기해 나갈 수 없으므로 농가 스스로가 목초와 사료작물 종자를 미리 충분히 확보하여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볏짚 등 국내 부족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조사료생산을 위한 노력이 어느때 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정부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올해 조사료생

산대책 추진을 위해 정책자금의 지원규모를 대폭 늘려 지원하고, 융자기간이 도래된 축산자금의 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한편 배합사료와 수입 사료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다각적인 정책지원과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무튼 소 사육농가들은 영농준비를 철저히 하여 올해 봄파종부터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최대한 늘려 조사료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올해는 지난해 발생한 엘니뇨의 여파로 봄가뭄 등 기상조건이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지와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 만약의 재해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끝으로, 현재의 위기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 48만 소사육농가들은 이를 충분히 극복할 능력과 저력을 갖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농가들은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이러한 축산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사양관리와 경영혁신을 해 나감은 물론, 양질조사료의 생산이용으로 사료비를 낮추어 안정적인 한우·육우 및 낙농경영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소사육농가와 생산단체·업계 그리고 정부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 ㉞

(필자연락처 : 02-504-9434)